

보성군, 2026년 새해 '말·말·말(言·馬·茶)'로 소통의 문 열다!

의례적 행사 대신 '공감형 부서 방문'으로 격식 파괴 소통 행보
내부에서 다진 소통의 에너지를, 민생 현장 행정으로 이어간다

보성군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기존의 관행적인 시무식에서 벗어나 부서 간 소통과 업무 공감을 강화하는 '공감형 소통 행보'로 2026년 군정의 포문을 열었다.
보성군은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진행하던 시무식을 대신해 군수가 전 부서를 차례대로 방문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청취하는 '말·말·말(言·馬·茶)로 통(通)하는 공감형 부서 방문'으로 2026년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말(言): 군수의 훈시 대신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소통, ▲말(馬):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되 함께 가

는 동행의 메시지, ▲말(茶): 보성 말차 한 잔을 나누며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형식적인 신년사 전달 방식이 아닌,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차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새해 바람이나 업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경청 중심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직원들은 "부서별로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업무 이해에 도움이 된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새해 덕담과 소통이 이어졌다.
한편, 보성군은 이날 새해 제1호 결재



로 '구들짱 민생 대장정'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구석구석, 들어주고, 짱짱하게 해결한다'라는 원칙 아래 3월까지 12개 읍면 140개소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이번 대장정은, 정부의 현장 중심 행정 기조에 발맞춰 사무실이 아닌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보성군만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보성/김윤기 기자



2026 나주방문의 해 대비 '나주밤상' 브랜드화 본격화 지정업소 설명회 개최... 미식 관광 경쟁력 강화 나서

'2026 나주방문의 해'를 앞두고 나주시가 지역 대표 미식 브랜드인 '나주밤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업소와의 협력을 본격화하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일 나주밤상 지정업소 대표자 44명 및 나주시 외식업주 2명을 대상으로 '나주밤상 브랜드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지원 사업을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나주밤상을 지역 대표 외식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취지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지정업소 대표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나주밤상 브랜드화 사업 추진 방향을 비롯해 지정업소 운영 기준과 관리 방향, 외식업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나주/이명열 기자

특히 나주밤상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정업소의 역할과 책임,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정업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 물품 지원과 노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대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2026 나주방문의 해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위생 안전과 친절 서비스 교육, 식중독 예방 관리, 외식경영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밤상은 나주의 역사와 문화, 삶의 이야기가 담긴 중요한 관광 자산"이라며 "지정업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미식 경험 제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성군, 새해에도 소통·경청 행보 이어간다

6~13일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지역 현안 해결책 논의
장성군이 6일부터 13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1일 2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이며, 날짜별로는 △6일 삼계·삼서면 △7일 서삼면·장성읍 △8일 북일면 △9일 북하·북이면 △12일 남·진원면 △13일 황룡·동화면 순이다.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매년 '군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 김한중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지역의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장소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지역 상황에 따라 문화센터 등 다른 공간을 활용하기도 한다. 농업 현장이나 경로당, 기업체 등도 함께 방문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의 진정한 주인인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모두가 행복한 장성,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 신청 9일까지 접수

친환경 농업인 개인 1억, 법인 5억 한도 연이율 1%로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70억 원 규모의 '2026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 신청을 이달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용자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자 신청 대상은 전라남도 1년 이상 거주하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과 법인, 생산자단체, 유통업체다. 용자 한도는 개인은 최대 1억 원, 법인은 5억 원, 유통업체는 10억 원까지다. 지원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은 친환경 비·콩 등 원료 구입, 버섯 종균 구입,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판매장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육묘장 신축,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유통시설 신축, 생산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 등에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 상환이다.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류는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용자를 희망하는 친환경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산업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사업 대상자와 지원 자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친환경 농업인이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담양군,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생계급여 지원 확대 통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 강화
기초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재산 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수급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

는 추가 공제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추가 공제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6년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생계급여 지원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이종욱 기자

진도군, '2026년 해양수산사업' 2차 사업자 모집

설 임대료 지원 ▲영세어업인 선외기 지원 ▲이상 수온 대응 지원 등으로 어업 현장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은 2026년 1월 14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진도군청 누리집(www.jindo.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진도군에 주소 또는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로, 지방세 체납 등 각 사업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단체는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오재명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 더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알고 싶으면 물어볼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늠하다.
평범함의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